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및 임상실습 만족도[†]

고봉연^{1*} · 이정은¹

¹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EMT-paramedic students[†]

Bong-Yeun Koh^{1*} · Jung-Eun Lee¹

¹Professor,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College

=Abstract =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paramedic students.

Methods : The study was conducted to 221 paramedic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training from March until June in 2012. Questionnaires consisted of level of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 The mean score of stress was 2.69(±.69), depression was 19.09(±9.41), coping styles was 3.17(±.47),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was 3.61 (±.58). Str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ctive coping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assive coping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ctive cop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assive coping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onclusion :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n decreasing stress and depression in paramedic students, and encouraging positive coping when the students received counseling and instruction for clinical

접수일 : 2012년 10월 17일 수정일 : 2012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0일

*Corresponding Author : Bong-Yeun Koh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College, 50 Cheoncheon-ro 74-gil, Jangan-gu, Suwon-si Gyeonggi-do 440-714, Republic of Korea

Tel : +82-31-249-6562 Fax : +82-31-249-6560 E-mail : emtko@dongnam.ac.kr

[†]이 논문은 2011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practice.

Key Words : Students, Stress, Depression, Coping behavior,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응급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 분야 중 그 기능 자체가 국민의 생명유지 및 장애 예방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현장과 병원과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질을 갖춘 인력, 질적 교육훈련, 적정 시설 및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응급의료종사자간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는 응급구조학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자질을 갖춘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배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2].

응급구조학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이 아닌 현장의 응급환자에게 직접 응급처치를 적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이론과 실습을 교육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현장임상실습의 교육목표는 응급구조학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대학에서는 현장임상실습을 병원 임상실습과 소방서의 구급차동승실습으로 이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중 병원 임상실습은 주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및 응급처치 행위를 관찰하고 경험하게 된다.

응급실은 다양한 응급환자를 만나게 되는 응급구조학 전공 학생의 주요한 병원 임상실습 부서이며, 병원 임상실습은 1급 응급구조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태도, 행동, 지식과 시기 등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다른 교육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교

육과정의 일환이다[2]. 특히 임상실습교육은 이론 지식을 실무에서 실제로 통합하고 적용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살아 있는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3].

그러나,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4,5],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학습능력저하 및 수행감소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상실습을 이행하는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Sheu 등은 임상실습기간 중 스트레스를 줄여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며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6].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 임상실습을 경험해야 하는 학생들은 타학과 학생에 비해 과중한 학습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 부족, 엄격한 행동규범 등과 관련된 실습학생으로서의 역할 적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 많은 스트레스에 접하고 있다[5]. 또한 임상실습시 학생들이 갖는 스트레스는 임상교육을 저해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과 학습을 저해하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7].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으로 우울이 발생할 수 있으며, Morimoto[8]는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우울을 중요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적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외에도 학과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로 우울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만사에 의욕과 흥미를 잃게 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며 대인관계, 인지, 사회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며, 정서적인 문제에서 행동 및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한 기능장애를 일으킨다.

병원 임상실습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이 임상실습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학생에게 심각한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기존의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가지고 실습에 임한다면 가중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실습만족도가 저하될 것이다.

Lazarus와 Folkman[9]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대처방식이라고 하였다.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의 관련성에 대해 비효율적 대처방법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함 및 다양한 질병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고[10], 도피적, 악순환적 대처행동이 만성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11], 정서중심적 대처방법은 우울과 불안을 낮추지 못하는 것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방법은 우울, 불안 등을 낮추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여 개인의 내적자원으로서의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12].

따라서 미래의 응급구조사로 자신의 정체감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및 병원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각 변수들의 실태와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스트레스 중재와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스트레스와 주요 정서적 문제인 우울, 대처방법 및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학습과정 중 병원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

업상담과 임상실습 교육 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 전공 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및 병원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병원 임상실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병원 임상실습 현황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정도와 대처방법, 병원 임상실습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은 경기, 충청지역의 3년제와 4년제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2,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병원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로,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이 불성실한 12

부를 제외한 총 221부를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Yeaworth 등[13]이 개발한 Adolescent Life Change Event Questionnaire(ALCEA)를 Park [14]이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 22문항, 임상실습에 관한 내용 5문항, 가족관계 등 가정에 관한 내용 18문항, 교우관계 11문항, 자신에 관한 내용 7문항, 이성교제에 관한 내용 10문항 총 73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기초로 간호학 교수 5인의 자문검토를 통해 Park과 Jang[5]이 임상실습 4문항, 자기 자신 6문항, 학교생활 9문항, 교우관계 5문항, 가정 6문항, 이성교제 4문항의 총 34문항으로 수정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각 문항이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4$ 이었고, Park과 Jang[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3$ 이었다.

2) 우울

Radloff[15]가 제작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도구를 국내에서 Shin[16]이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CES-D는 20문항으로 전혀 그런 적이 없다(0점)에서 언제나 그렇다(3점)까지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분포는 0-60점까지이며 10-19점은 경증 우울증, 20점 이상은 중증 우울증으로 해석하였다[16]. 4문항(4, 8, 12, 16)은 역산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고, Park과 Jang[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0$ 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2$ 였다.

3) 대처방법

Folkman과 Lazarus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17]를 Kim과 Lee[18]가 수정 보완한 질문지 내용을 참고하여 하위변인 8개(문제의 집중적 대처 10문항, 분리대처 6문항, 소망적 사고 대처 3문항, 사회적 지지의 추구 대처 3문항, 기분전환 대처 3문항, 타협 대처 3문항, 모험시도 대처 1문항, 분노의 표출 1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이 대처방법을 문제의 집중적 대처(10문항)와 사회적 지지의 추구 대처(3문항)는 적극적 대처방법으로, 분리 대처(6문항), 소망적 사고 대처(3문항), 기분전환 대처(3문항), 타협 대처(3문항), 모험시도 대처(1문항)와 분노의 표출(1문항)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19]. 이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1점(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자주 한다)으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Kim[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1$ 이었다.

4) 임상실습 만족도

Park과 Jang[5]이 수정 개발한 실습내용 및 방법 6문항, 실습지도 8문항, 실습환경 4문항, 실습시간 4문항, 실습평가 5문항, 대인관계 4문항의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가 5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Jang[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8$ 이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분

- 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병원임상실습 만족도는 t-test, ANOVA, 사후검정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

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응답자중 남학생이 47.5%이며, 학년은 2학년이 22.2%, 3학년이 52.5%, 4학년이 25.3%이다. 재학 중인 대학의 학제는 3년제가 51.4%이며 4년제가 48.6%이었다. 연령은 21-24세 59.6%, 20세 이하가 32.7%, 25세 이상이 7.7%였다. 임상실습 횟수는 1회가 46.2%이며 3회 실습나간 경우가 53.8%였다. 과 선택 동기는 본인의 적성으로 선택한 경우가 54.8%, 취업률이 높아서 선택한 경우 22.4%, 타인의 권유로 15.4%가 선택하였다. 또한 취업희망분야가 119 소방서가 67.9이며, 응급실이 19.8%였다. 임상실습 시기는 학기 중에 시행하는 경우가 72.4%였고, 방학 중에 시행하는 경우가 25.3%였다. 실습하는 병원에 응급구조사가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96.8%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y	N(%)	Total
Gender	Male	105(47.5)	221
	Female	116(52.5)	
Grade	2nd	49(22.2)	221
	3rd	116(52.5)	
	4th	56(25.3)	
College	3 years program	112(51.4)	218
	4 years program	106(48.6)	
Age	≤20	72(32.7)	220
	21~24	131(59.6)	
	≥25	17(7.7)	
Frequency of clinical practice	1 time	102(46.2)	221
	3 times	119(53.8)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Aptitude	120(54.8)	219
	High employment rate	49(22.4)	
	Recommend	34(15.4)	
	Other	16(7.2)	
Desired career	Hospital	42(19.8)	212
	119	144(67.9)	
	Others	19(9.0)	
	Hospital, 119	7(3.3)	
Period of clinical practice	On semester	160(72.4)	221
	On vocation	56(25.3)	
	Both	5(2.3)	
Paramedics	Present	214(96.8)	221
	Not present	7(3.2)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및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69(±.49)점이었고, 우울 정도는 60점 만점에 평균 19.09(±9.41)점, 대처방법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17(±.47)점이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61(±.58)점이었다. 영역별 스트레스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19(±.63)점, 자기자신 스트레스가 2.87(±.86)점,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3.24(±.69)점,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2.22(±.78)점,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1.85(±.67)점, 이성교제 스트레스가 2.39(±.85)점이었다. 대처방법은 적극적 대처방법은 3.29

Table 2. Degree of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Mean	SD
Stress	Total	2.69	.49
	Clinical practice	3.19	.63
	Self	2.87	.86
	Adjustment to school	3.24	.69
	Friend relationship	2.22	.78
	Family	1.85	.67
	Boyfriend(girlfriend)	2.39	.85
Coping styles	Total	3.17	.47
	Active coping	3.29	.59
	Passive coping	3.07	.48
Depression		19.09	9.41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Total	3.61	.58
	Content	3.65	.54
	Guidance	3.41	.93
	Circumstance	3.52	.69
	Hours	3.60	.81
	Evaluation	3.50	.89
	Relationship	3.74	.69

($\pm .59$)점이고 소극적 대처방법은 $3.07(\pm .48)$ 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습내용 만족도가 $3.65(\pm .54)$ 점, 실습지도 만족도가 $3.41(\pm .93)$ 점, 실습환경 만족도가 $3.52(\pm .69)$ 점, 실습시간 만족도는 $3.60(\pm .81)$ 점, 실습평가 만족도는 $3.50(\pm .89)$ 점, 대인관계 만족도는 $3.74(\pm .69)$ 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및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F=5.84, p=.00$)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0세 이하인 군이 21~24세군과 25세 이상 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Scheffe 검정 결과), 즉 20세 이하인 군이 스트레스 정도가 $2.83(\pm .47)$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1~24세는 $2.65(\pm .50)$ 점, 25세 이상은 $2.43(\pm .30)$ 점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군이 없었다.

대상자의 과선택 동기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F=5.47, p=.00$)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적성에 따라 선택한 군이 취업률, 타인의 권유, 기타에 의해 선택한 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Scheffe 검정 결과). 즉 적성에 따라 선택한 군은 $3.72(\pm .57)$ 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취업률에 따라 선택한 군은 $3.49(\pm .58)$ 점, 타인의 권유에 따라 선택한 군은 $3.58(\pm .53)$ 점, 기타군은 $3.19(\pm .48)$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취업희망부서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F=5.42, p=.00$)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병원희망군, 소방서 희망군, 기타 희망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Scheffe 검정 결과), 즉 병원희망군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3.71(\pm .56)$ 점, 소방서 희망군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3.64(\pm .55)$ 점으로 기타 군의 $3.22(\pm .68)$ 점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대처방법은 적극적 대처방법과 소극적 대처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2, 3, 4학년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학년이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3.46점 사용하였고 4학년이 3.30점을 사용하였으며 3학년이 3.22점을 사용하였으나 Scheffe 사후검정 결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4).

4.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관계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우울

Table 3.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		Stress			Depressi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Mean±SD	t, F	p	Mean±SD	t, F	p	Mean±SD	t, F	p
Genders	Male	2,64±.51	0.39	.70	18,36±9.88	-1.09	.28	3,63±.60	0.45	.66
	Female	2,73±.47			19,76±8.95			3,60±.56		
Grade	2	2,71±.63	0.64	.53	20,25±11.66	0.47	.63	3,77±.69	2.31	.10
	3	2,71±.44			18,74±8.51			3,56±.59		
	4	2,63±.45			18,80±9.12			3,59±.41		
College	3 year pg	2,75±.52	1.71	.09	18,87±10.04	-0.36	.72	3,62±.61	0.35	.73
	4 year pg	2,63±.45			19,32±8.73			3,60±.54		
Frequency of clinical practice	1	2,68±.55	-0.34	.74	20,13±9.82	1.51	.13	3,67±.70	1.41	.16
	3	2,70±.43			18,20±8.89			3,56±.44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Aptitude	2,62±.48	2.49	.06	18,82±9.15	0.27	.85	3,72±.57	5.47	.00
	High Employment rate	2,76±.49			19,80±10.72			3,49±.58		
	Recommend	2,72±.48			18,41±8.76			3,58±.53		
	Other	2,93±.49			20,33±9.19			3,19±.48		
Age	≤20	2,83±.47	5.84	.00	20,08±9.30	1.40	.25	3,73±.65	2.44	.09
	21-24	2,65±.50	a>b,c		18,84±9.54			3,54±.54		
	≥25	2,43±.30			15,94±8.03			3,67±.51		
Desired career	Hospital	2,77±.43	1.02	.36	20,59±8.40	1.25	.29	3,71±.56	5.42	.00
	119	2,65±.48			18,22±9.86			3,64±.55		
	Others	2,63±.55			20,42±8.96			3,22±.68		

($r=.469, p=.000$)과 순상관관계가 있으며, 적극적인 대처방법($r=-.156, p=.026$), 임상실습 만족도($r=-.279, p=.000$)와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소극적 대처방법($r=.165, p=.015$)과 순상관관계가 있고, 임상실습 만족도($r=-.240, p=.000$)와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소극적 대처방법($r=.589, p=.000$), 임상실습 만족도($r=.324, p=.000$)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IV. 고찰

병원임상실습은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대학에서 학습한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과 지식 등을 임상에 적용해 봄으로써 지식, 기술, 태도에 행위 변화를 주는 것이다[21]. 이론적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키고 현장 적응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자신의 전공을 좀 더 현실적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22].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병원임상실습의 스트레스와 주요 정서적 문제인 우울, 대처방법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업상담과 임상실습

Table 4. Active and passive coping sty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Mean ±SD	t, F	p	Mean ±SD	t, F	p
Genders	Male	3.34 ± .62	1.16	.25	3.05 ± .50	-0.44	.66
	Female	3.25 ± .55			3.08 ± .46		
Grade	2	3.46 ± .64	2.97	.05	3.14 ± .48	0.76	.47
	3	3.22 ± .55			3.06 ± .48		
	4	3.30 ± .59			3.02 ± .48		
College	3 years program	3.33 ± .60	0.94	.35	3.10 ± .47	0.06	.20
	4 years program	3.25 ± .58			3.03 ± .48		
Frequency of clinical practice	1	3.33 ± .62	0.81	.42	3.08 ± .49	0.41	.68
	3	3.26 ± .56			3.06 ± .47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Aptitude	3.39 ± .59	2.29	.08	3.10 ± .47	0.39	.76
	High Employment rate	3.20 ± .69			3.02 ± .54		
	Recommend	3.23 ± .42			3.06 ± .43		
	Other	3.08 ± .37			3.02 ± .40		
Age	≤20	3.29 ± .61	0.06	.94	3.12 ± .48	1.31	.27
	21-24	3.28 ± .57			3.06 ± .46		
	≥25	3.33 ± .69			2.91 ± .59		
Desired career	Hospital	3.16 ± .60	1.53	.22	3.01 ± .55	0.67	.51
	119	3.31 ± .57			3.08 ± .46		
	Others	3.41 ± .63			3.15 ± .35		

Table 5. Correlation amo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tress	Depression	Active coping style	Passive coping style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tress	1.000	.469 [†]	-.156 [*]	.106	-.279 [†]
Depression		1.000	-.113	.165 [*]	-.240 [†]
Active coping style			1.000	.598 [†]	.324 [†]
Passive coping style				1.000	.103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1.000

* p < .05, † p < .001

교육 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응급구조(학)과 교육의 실무지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최대 평점

5점에 대해 2.69(±.49)점이며 영역별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19(±.63)점이며 학교생활 적응 스트레스는 3.24(±.69)점으로 높았고 자기자신이 2.87(±.86)점, 이성친구가 2.39(±.85)점, 교우

관계가 2.22(±.78)점, 가족은 1.85(±.67)점으로 나타났다. Jun 등이 연구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3.06(±.50)점[7]으로 본 연구가 더 높았다. 또한 Park과 Jang의 연구인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정도는 2.82(±.39)점[5]이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47(±.55)점, 학교생활이 3.77(±.54)점, 자기 자신이 2.90(±.69)점, 교우관계가 2.42(±.63)점, 이성교제가 2.48(±.46)점, 가족이 1.91(±.61)점으로 본 연구보다 약간 높게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Kim 등의 연구에 의한 간호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16(±.46)점[4]이며, Kim과 Lee는 3.33(±.48)점[23], Han과 Yu는 3.43(±.56)점[24], Yang과 Moon은 3.45(±.59)점[25]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거나 약간 높게 나왔으며, Kim과 Jung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2.76(±.55)점[26]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결국 영역별로 학교생활 적응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은 점수였으며 자기 자신, 이성친구, 교우관계 등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 점수가 낮았다. 과별 차이는 임상실습에서 간호과 학생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응급구조(학)과가 그 다음이었으며 치위생과 학생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별 스트레스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으로 20세 이하 군은 2.83점, 21-24세 군은 2.65점이며 25세 이상 군은 2.43점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60점 만점에 평균 19.09(±9.41)점으로 약간의 우울 정도를 나타내어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우울정도는 19.23(±7.70)점[5]이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정도는 17.20(±9.43)점[27]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대학생보다는 더 우울정도가 높으며 간호대학생과는 유사한 우울정도를 보

였다. 이 점수는 경증 우울증(10-19)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일반 대학생들보다 응급구조(학)과와 간호과 학생의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처방법은 5점 척도로 적극적 대처방법과 소극적 대처방법으로 나누었다. 적극적 대처방법은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의 추구가며, 소극적 대처방법은 분리, 소망적 사고, 기분전환, 타협, 모험시도, 분노의 표출 등이 있다. 대처방법으로 대상자들은 적극적 대처를 3.29(±.59)점과 소극적 대처를 3.07(±.48)점으로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대처방법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적극적 대처방법을 2.69(±.54)점으로, 소극적 대처방법을 2.87(±.54)점으로 사용하였다[19].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한 결과가 나왔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대처방법(5점 척도)으로 주로 사용된 방법이 20대 교사는 사회적 지지 추구를 3.49(±.66)점, 문제집중적 대처를 3.37(±.50)점으로 많이 사용하여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30대 교사는 사회적 지지 추구를 3.40(±.54)점, 문제집중적 대처를 3.30(±.47)점으로 주로 20-30대 교사들은 사회적 지지 추구와 문제 집중적 대처로 적극적 대처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대처방법으로 선택하였다[20]. 또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처방법(4점 척도)으로 문제중심 대처를 2.60(±.46)점, 정서중심적 대처를 2.25(±.50)점으로 문제중심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5]. 이에 비해 본 연구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주로 적극적 대처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교사집단과 유사하게 소극적 대처보다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선호하는 대처방법으로 답하였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적극적 대처방법을 주로 하는 반면 간호대학생은 소극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것과

적극적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최대평점 5점에 대해 3.61(±.58)점 이었으며, Park 과 Nam의 응급 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53(±.56)이었으며[28], Choi 등의 연구에서는 3.56(±.79)점이었고[22], Park과 Choi는 2.99점(4점 만점)이었으며[2]. Park과 Jang의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81(±.41)점이었고[5], Yang과 Moon은 3.11(±.38)점이었고[25], Kang 등은 실험군의 실습만족도는 3.66(±.43)점이며 대조군은 3.46(±.41)점이었다[29].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유사하며, 간호학과 학생보다는 높으며 임상실습을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험군과 유사한 만족도를 나타냈다. 영역별로는 대인관계 3.74(±.69), 실습내용 3.65(±.54), 실습시간 3.60(±.81)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실습환경 3.52(±.69), 평가방법 3.50(±.89), 실습지도 3.41(±.93)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실습내용이나 실습시간, 실습 중 대인관계에 만족도가 높으며 반면 실습환경이나 평가방법, 실습지도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만족도는 4점 만점에 2.99점으로 나타나[2], 실습 후 만족도 영역과 실습내용과 방법 영역이 만족도가 높으며 실습환경이나 실습지도에 대해 만족도가 낮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22]. 이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실습환경이나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병원임상실습의 내용이나 시간, 대인관계 등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과 선택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5.47, p=.000$), 과를 적성에 따라 선택한 군은 3.72점으로 기타군의 3.19점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Scheffe

test). 또한 취업희망부서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5.42, p=.005$), 병원 응급실 근무를 희망하는 군이 3.71점, 소방서 구급대를 희망하는 군이 3.64점으로 기타군 3.22점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effe test).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았으며($r=.469, p=.000$), 적극적 대처방법을 덜 사용하며($r=-.156, p=.026$), 임상실습 만족도도 낮은 것($r=-.279, p=.000$)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소극적 대처방법을 더 사용하였으며($r=.165, p=.015$), 임상실습 만족도는 떨어뜨리는 것($r=-.240, p=.000$)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군이 소극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r=.589, p=.000$)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도 높은 것($r=.324, p=.000$)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5]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우울($r=.520, p=.000$)과 순상관관계가 있고, 문제중심적 대처($r=-.132, p=.034$)와 임상실습 만족도($r=-.244, p=.000$)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은 임상실습만족도($r=-.134, p=.039$)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문제중심적 대처는 정서중심적 대처($r=.521, p=.000$)와 순상관관계가 있고, 우울($r=-.189, p=.003$)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정서중심적 대처는 우울($r=.187, p=.003$)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대처방법인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의 추구대처를 많이 사용하도록 학업상담과 임상실습 지도 시 먼저 문제해결 가능성과 도울 수 있는 지지체계 마련과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도록 학생지도체계와 교

육적 접근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응급구조(학)과 임상실습교육 실무지침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 충청지역의 3년제와 4년제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2,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병원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자로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로,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이 불성실한 12부를 제외한 총 221부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t-검정, F-검정,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각 변수간의 평균값 비교 및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19(±.63)점이며 학교생활 적응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평균 19.09(±9.41)점으로 경증 우울증에 해당되었고, 대처방법은 적극적 대처방법이 소극적 대처방법보다 약간 많이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3.61(±.58)점이었다.

20세 이하군의 스트레스가 21-24세군, 25세 이상 군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환경이나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병원임상실습의 내용이나 시간, 대인관계 등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과 선택 동기에 따라 과를 적성에 따라 선택한 군이 기타군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취업희망부서에 따

라 병원 응급실 근무를 희망하는 군이 소방서 구급대를 희망하는 군과 기타군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았으며, 적극적 대처방법을 덜 사용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소극적 대처방법을 더 사용하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군은 소극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대처방법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의 추구대처를 많이 사용하도록 학생 지도체계와 교육적 접근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학교생활과 병원임상실습에 관련된 스트레스, 우울 중재를 위해 대처방안에 대한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조사연구 자료이므로 향후 개인의 대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추후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Choi ES, Lee IS. A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n field practice of EMT college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1997;1(1):87-99.
2. Park SM, Choi ES. Influencing factors on the satisfaction of the paramedics students

- in clinical training. *Korean J Emerg Med Ser* 2012;16(1):91-101.
3. Jung JS.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2;18(1):53-61.
 4. Kim IS, Jang YK, Park SH, Song 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1;17(3):339-47.
 5. Park HJ, Jang I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0;16(1):14-23.
 6. Sheu S, Lin HS, Hwang SL. Perceived stress and physio-psycho-social statu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ir initial period of clinical practice: the effect of coping behaviors. *Int J Nurs Stud* 2002;39(2):165-75.
 7. Jun HY, Kim G, Ann HG. An analysis study on stressor experienced by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Korean J Emerg Med Ser* 1999;3(3):43-54.
 8. Morimoto K. Life and stress of modern people. In Kawano TN, Kuboki TH(Ed.), *Problem and coping of stress*. Tokyo: Shibundo, 1999. 46-59.
 9.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84:100-11.
 10. Wong DF, Leung SS, So CK. Differential impacts of coping strategies on mental health of Chinese nurses in hospitals in Hong Kong. *Int J Nurs Pract*. 2001;7(3):188-98.
 11. Munakata, T. *Behavioral science in health and illness*. Tokyo: Meijikarufurendosha, 1996:16-34.
 12. Choi YM, Lee JH, Lee GC. Effects of perceived stress and ways of coping on anxiety and depression in White-collar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6;5(6):1376-85.
 13. Yeaworth RC, York J, Hussey MA, Ingle ME, Goodwin T. The development of an adolescent life change event scale. *Adolescence* 1980;15(57):91-7.
 14. Park HS. A study on the stressors, perceived stress level, and coping of the Nursing students. *J CSJ* 1997;27:1-43.
 15. Radloff LS.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 1977;1(3):385-400.
 16. Shin KL. Depression among Korean women. *J Korean Acad Nurs* 2001;31(3):391-400.
 17. Forkman S, Lazarus R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85:107-13.
 18. Kim JH, Lee JH.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J behavioral sci* 1985;7:49-60.
 19. Park MA.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9, Daegu, Korea.
 20. Kim H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work-related stress perception and methods to cope with the stress of high school

-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8, Gongju, Korea.
21. Park DS, Nam KW. A correlatio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EMT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2007;11(3):47-64.
 22. Choi SS, Park J, Ryu SY, Han MA.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and associated factors with satisfaction among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rean J Emerg Med Ser* 2012; 16(2):9-22.
 23.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05;11(1): 98-106.
 24. Han SH, Yu HS. College women's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 disclosure in an a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2;18(1):130-39.
 25. Yang NY, Moon SY.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2011;17(2): 216-25.
 26. Kim SK, Jung YS.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es and stress coping styles. *J Korean Soc Dental Hygiene Science* 2010;10(5):887-95.
 27. Yoon MS, Lee H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job prepar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n Youth Research Assoc* 2012;19(3):109-37.
 28. Park DS, Nam KW. A correlatio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EMT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2007;11(3):47-64.
 29. Kang YS, Cho H, Roh YS, Boo EH, Ahn KH. The effects of cooperative clin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06;12(1):13-20.